백지원, 시청자 가슴 뻥~ 뚫어주는 '사이다녀'

SBS드라마 '애인 있어요' 최진리 역

독설로 활력과 쾌감 불어넣는 '신 스틸러' 주인공 받쳐주고 자극하는 역할 "재밌다"

안방극장에서 자주 보던 얼굴이 아닌데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빼어난 미모(?)를 자랑하지도 않지만 묘하게도 시선을 끌어당긴다. 안정된 연기까지 더해져 조용하게 드라마를 장악한 그야말로 '신 스틸러'다.

폭넓은 '아줌마 마니아 시청자'를 거느리고 있는 SBS 주말드라마 '애인 있어요'에서 최진리 역으로 사랑받고 있는 연기자 백지원(42) 이야기다. 극중 지진희의 이복누나로 나와 모든 이에게 독설을 퍼붓는다. 지진희와 김현주를 둘러싼 멜로라인이 답답하게 진행될라치면 어김없이 등장해 극에 활력과 쾌감을 불어넣는다. 시청자의 속을 시원하게 뚫어주며 일명 '사이다녀'로 통하고, 얄밉게 치켜 뜬 '도끼눈'은 상당히 인상적인 느낌을 준다.

"요즘 '잘 보고 있다'며 말을 거는 분들이 많아졌다. 예전에는 전혀 그런 반응이 없었는데, 알아봐주니 제가 더 신기하더라. 극중 진리가 인물들 중 가장 일관적이다. 악인도 변하기 나름인데 변함없이 끝까지 못되게 구니까. 하하!"

백지원은 2012년 JTBC 드라마 '아내의 자격'으로 안방극장으로 처음 진출했다. 1996년 '떠벌이 아버지 암에 걸리셨네'를 시작으로 줄곧 연극무대에 오르다 '아내의 자격'의 안판석 PD와 인연이 닿아 '밀회' '풍문으로 들었소' 등에 줄줄이 출연했다.

"처음엔 안 PD가 '어떻게 하나 볼까?' '짧은 신이니까 빨리 찍고 가자'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 찍고 나서 '재미있다'는 말을 해주는데, 뭔가 흥분됐다."

이후 그는 드라마에 흥미를 느끼고 작은 역이라도 마다하지 않는다. 주조연이 할 역할이 따로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다"고 했다.

"작가와 연출자의 의도대로 주인공을 받쳐주고 자극하는 역할이다.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그 사람의 캐릭터인 것 같다. 어떻게 하면 더 주인공을 받쳐주면서 이야기를 풍부하게 만들지 고민하고 있다."

백지원은 이런 역할에 자신의 얼굴이 "제격"이라고 했다. 한때 성형수술 제의를 받고 '정말 수술을 해야 하나' 고민도 했지만, "쓸모 있는 얼굴"이라는 자신감을 가졌다.

이번 드라마도 못 생겨서(?) 출연하게 됐다고 말하며 웃는다. 진리는 시놉시스에 '성형을 했지만 원하는 대로 잘 안 된, 외모 콤플렉스가 심한' 인물로 되어 있다.

"오히려 캐스팅해줘 고맙다고 했다. 재벌 2세가 모두 예쁘건 아니지 않나. 그 인물의 내면을 봤다. 다 가진 여자가 외모 콤플렉스에 시달라면 속으로 얼마나 삐뚤어진 게 많을까. 오히려 제 개성 있는 얼굴이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제 눈은 핸디캡이 많다. 여배우는 쌍꺼풀이 있어야 하나 하고 고민한 적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백지원은 현재 전속계약을 맺자는 기획사들의 제의도 많이 받고 있다. 매니저도 없고 직접 운전해 촬영현장을 오가지만,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릴 거라고 말했다.

"다들 전성기라고 말을 하는데, 아직 멀었다. 주연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오랫동안 연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 그런 관심을 받고 싶은 것뿐이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백지원은 SBS 주말드라마 '애인 있어요'에서 여성 시청자의 꽉 막힌 속을 뻥 뚫어주는 연기로 주목 받고 있다. 오랜 연극무대 경험에 그는 "드라마 연기가 굉장히 재미있다"고 했다. 사진제공 | SBS

스타, 그때 이런 일이 〈1994년 12월 4일〉

커티스, 드라마'인간의 땅' 출연

1994년 오늘, 할리우드 스타 토니 커티스가 제주도 한림공원에서 언론 취재진의 카메라 앞에 나섰다. 그해 10월12일부터 방송 중이었던 KBS 2TV 드라마 '인간의 땅' 촬영현장이었다. 12월1일 내한한 그는 이날 '인간의 땅' 촬영을 모두 마쳤다.

토니 커티스는 영화 '대장 부리바', '뜨거운 것이 좋아' 등으로 국내에도 많은 팬을 확보한 낯익은 배우. 나이 칠순을 눈앞에 둔 때였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국내 취재진을 만났다. '인간의 땅'의 대본을 읽고 인간애와 재미를 모두 갖춘 작품이라는 생각에 출연을 결정했다는 그는 김혜자와 호흡을 맞추며 제주 촬영을 마감했다.

토니 커티스의 출연은 당시로서는 상당한 화제를 모았다. 국내 드라마에 세계적인 명성을 누린 해외 스타가 출연하기는 드문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출연한 '인간의 땅'은 1900년대 초기 멕시코에 노예로 팔려간 김실단과 그의 언니 김금단의 실화를 통해 일제강점기부터 해방정국을 살아낸 역사 속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 외주제작사 제일영상의 심현우 대표가 연출해 50억원의 대규모 제작비를 들이며 한국과 미국, 멕시코, 홍콩, 중국, 러시아 등을 돌며 제작했다. 김혜자, 옥소리, 염정아 등이 주연한 드라마에서 토니 커티스는 극중 김실단에게 연민을 느끼는 멕시코 애니깽 농장의 주인 역을 맡았다.

이와 함께 '인간의 땅'은 김혜자가 오랜 시간 활약한 MBC를 떠나 KBS 드라마에 처음 출연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또 국회의원을 지낸 홍성우의 방송 복귀작이었고, 스크린에서만 활동해온 최지희의 출연, 가수 심신의 연기 데뷔작 등이라는 점에서도 시선을 모았다.

그 외에도 이 드라마에는 당초 홍콩의 메이옌팡(매염방) 등 일부 해외 스타들도 출연한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하지만 현실화하지는 못했다.

이는 '인간의 땅'이 그 규모만큼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의 전조에 불과했다. '인간의 땅'은 드라마로서 완성도에 대한 비판 속에 시청률마저 기대 이하의 성적을 냈다. 이 때문에 당초 50부작으로 예정했던 편성은 40부작으로 줄어들고 말았다. 하지만 드라마 외주제작이 활성화한 요즘의 방송 환경과 비교하면 당시 이 드라마와 그 제작진의 시도는 평가받을 만하다는 시선도 없지 않다.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이야기와 이를 구현해낼 만한 제작의 규모 등을 외주제작사 홀로 감당해냈기 때문이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한국이냐, 중국이냐" 이유리, 행복한 갈림길

KBS·중국서 드라마 출연 동시제의

연기자 이유리(사진)가 안정과 도전의 갈림길에 섰다.

이유리는 내년 2월 방송 예정인 KBS 2TV 새 일일드라마 '배반의 유혹'(가제)과 중국드라마 '자기야 미안해'의 출연 제의를 동시에 받았다. 케이블채널 tvN '슈퍼대디 열' 이후 9개월 만이다.

국내와 중국의 동시 러브콜에 이유리는 일단 '기분 좋은 표정'. 무엇보다 중국시장의 가파른 성장세와 한국드라마를 바라보는 높은 시선을 고려한다면 뿌리치기 어려운 기회이기 때문이다. 장서희, 추자현, 장나라, 이다해 등 뒤를 이어 현지에서 활약할 수 있는 절호의 무대인 셈이다.

한 남자와 세 여자의 사랑을 그린 '자기야 미안해'는 일찌감치 주진모를 주인공으로 낙점하고 중국 여배우를 섭외하려 했다. 하지만 중국 제작사 측은 드라마 '왔다! 장보리'에 등장한 이유리의 열연을 보고 계획을 변경했다.

다행히 두 드라마의 촬영 일정이 겹치지 않아 출연을 결정하는 데 큰 걸림돌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배반의 유혹'은 내년부터 촬영을 시작할 예정이며, '자기야 미안해'는 내년 6월 방송을 계획하고 있다.

이유리 측 관계자는 "'배반의 유혹' 출연은 긍정적으로 논의 중이다. 하지만 중국드라마 역시 쉽게 찾아오는 기회가 아니어서 여러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 빅 마우스

● **"사랑하고 싶어 노래 제목도 '나도 사랑하고 싶다'로 했다."(가수 로이킴)** 3일 열린 새 음반 쇼케이스에서. 타이틀곡 '나도 사랑하고 싶다'를 소개하며.

● **"시청률 30% 넘으면 법대에서 프리허그 하겠다."(연기자 유승호)** 3일 열린 SBS 수목드라마 '리멤버: 아들의 전쟁' 제작발표회에서. "시청률 30% 돌파가 어렵지만 그래도 욕심난다"고 극중 변호사 캐릭터에 빗대 말하며.

편집 |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